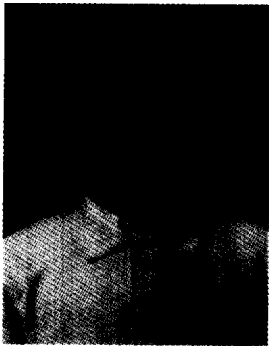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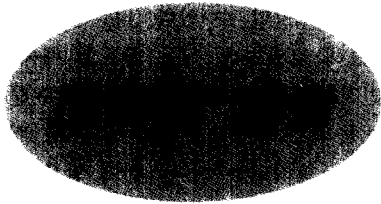


학생페이지



송 화 칭*

*고려대 공대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이공계 학생의 학부생활과 대학원 생활에 큰 차이는 아마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출근가 퇴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학부시절에는 학교에 오는 시간이 그날의 첫 수업이 몇 시 인지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은 팀웍이라는 관점에서 각 연구실의 정한 시간에 연구실에 와서 각자에 일에 열중하게 된다. 외국대학의 경우가 어떨지는 가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출근시간을 넉넉잡아 오전 10시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넘어 출근하는 경우 어떤 벌칙이 부여된다. 처음에 이 벌칙은 연구실 저금통을 만들어 지각하면 1,000원을 넣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이후에 회식이나 연구실에 필요한 물건등을 살때 쓰는 연구실 공금에 포함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벌칙이 변하여서 늦는 사람이 연구실원 모두에게 커피등의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나도 몇 번 걸려 본 적이 있지만 역시 자주 늦게 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늦게 오게 된다.

대학원 입학식은 3월달이지만 연구실에 출근하게 된 것은 1월달부터이었다. 그 때 처음으로 '세미나'라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학부시절에는 자주 듣지는 못했던 단어이다.

세미나는 연구실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자의 의견 또는 생각등을 말하며 토론한다.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미나라는 것에 익숙해 졌다. 첫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세미나를 주제하게 되었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힘들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부시절에는 자주 접해 보지 못했던 탓일 것이다. 세미나는 일단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적어도 자기 자신만의 이해라도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준비했던 말도 아마 1/3도 말하지 못하고 황설수설하였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되었으니,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은 더 그러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원생이 되면서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로 지내게 되는 사람들의 연령계층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학부시절에는 같은 과,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점심을 같이 먹고 비슷한 옷차림에 같은 것을 즐기지만 대학원생은 주로 연구실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거나, 또한 여가가 있다면 같이 지낸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행동패턴을 알게 되고 또 같이 그것대로 행동해 나가게 되는 것 같다. 옷차림도 바뀌게 된다. 연구실에 나오고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옷차림도 학부시절 때와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연구실에 적응하게 되면 옷차림도 뭔가 나이가 들어보는 옷을 선호하게 된다.

학부시절에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존재였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실험 조교 같은 것이다. 군대를 갔다온 나는 같은 학기에 석사과정에 입학한 연구실 후배가 있었다. 이 후배와 함께 석사 1학기때 하나의 실험을 맡아 조교를 하였는데,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실험 첫 부분에서 그날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때 왜 그렇게 만 짓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역시 사람 다루는 일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약간 즐거웠던 것은 우리 학교가 전기·전자·전파공학부로 합쳐지면서 여학생들이 꽤 늘게 되어 내가 맡은 실험에서도 5명의 여학생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보다 5년 후배로 귀엽기도 하고 아무튼 이 때문에

실험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조교로서 여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다. 실험을 마지막날 퀴즈를 보면서 소감 한 마디씩 적으라고 하였는데 채점을 하면서 그것을 읽어 보는 것은 아주 흐뭇한 일로 기억된다.

학부시절에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원하던 원하지 않든 수업에 참가하고 충실히 정하여진 책을 공부하고 그 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로 공부하면 되었었다. 즉,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되면서부터는 그 확신이 조금 희미해 지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정하여진 교과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책을 공부하면 되지만 최근 연구 방향이라던가 연구내용은 당연히 책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의 수업내용뿐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따로 공부해 나가야 한다. 스스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 내고 또 그 자료를 자신이 직접 찾아서 공부해 가는 것이다. 이 점이 내가 석사과정 초기에 어렵게 느꼈던 점 같다.

여기에서 약간 우리나라 대학들에 대한 비평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어떤 외국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보고 필요한 문헌을 찾으려고 할 때, 항상 어려움을 느껴왔다. 물론 참고문헌이 책인 경우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참고문헌이 한 연구집단의 Transaction의 경우도 못 구하는 때가 있어 자료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았다. 너무 비평적인 말을 썼는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자료는 더더욱 값어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최근 web-site상의 도서관이 생겨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LG 상남도서관,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다.

우리 교수님은 항상 '대학원생이 학술대회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석사과정인 나로서는 학술대회에서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부분중에 하나이다.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뭔가 창조적인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안하는 것도 창피한 일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학술대회에서 두 번 발표해 보았는데, 처음 발표할 때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다. 먼저 논문초록을 내는 일이다. 논문초록은 학술대회 발표할 논문의 요약정도를 쓰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마저 쉽지 않았다.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발표할 논문을 내야 했었는데, 3주전에 이미 논문을 마무리 하였으나, 내용을 계속 손질해 나갔다. 역시 초심자는 뭔가 글을 써도 초심자티가 나는 것 같았고 나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다.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드디어 발표논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OHP를 만드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고 발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어려웠다.

교수님과 연구실 사람들 앞에서 발표 리허설도 하고 스스로로도 연습을 하였다. 드디어 학술대회날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암기 하였으나 약간 떨리기도 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발표할 때는 약간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발표를 마치고는 가슴을 쓸었다. 이렇게 첫 발표가 끝난 후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내가 어떤 방면이 부족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할 지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학원 생활은 이렇다.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고 그것을 알아내고 창조적인 것은 덧붙이고 또 발표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공부하는 것이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